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公<sup>1</sup>無<sup>2</sup>渡河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기 - 임이 물을 건너는 것을 만류함

公竟<sup>3</sup>渡河 임은 그에 물을 건너시네.

▶승 - 임이 물을 건넌

墮河<sup>4</sup>而死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전 - 임이 물에 빠져 죽음

當奈公何<sup>5</sup> 가신 임을 어이할꼬.

▶결 - 임을 잃은 화자의 슬픔과 체념

[어휘 풀이] 1) 공(公) : 당신, 임, 남편. 여기서는 '백수광부'를 이르는 말 2) 무(無) : 원래의 뜻은 '없다'이지만, 여기서는 '~하지말라'는 금지의 의미임. 3) 경(竟) : 마침내, 기어코, 드디어, 그에 4) 타하(墮河) : 물에 휩쓸리다. 5) 내(奈)~하(何) : ~을/를 어찌하는가. 탄식의 어조임.

[배경 설화]

고조선의 뱃사공 광리자고(霍里子高)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머리가 하얗게 쉰 미치광이 한 사람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쥐고는 어지러이 흐르는 강물을 건너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그 뒤를 따르며 말렸으나 그 미치광이는 끝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에 그의 아내는 공후를 뜯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가 아주 슬펐다. 노래가 끝나자 그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광리자고는 집에 돌아와 자기 아내 여옥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노래를 들려 주었다. 여옥은 슬퍼하며 공후를 뜯으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였다. 그 후 여옥은 이 노래를 이웃에 사는 여용에게 전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 노래를 '공후인(箜篌引)'이라고 불렀다.

- ① 한(恨)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② 비유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작품이다.
- ④ 사랑하는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시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과 맥이 닿아 있다.

2. 이 노래의 '물'과 <보기>의 '인당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심청전'에서 심청은 아버지 심 봉사(沈奉事)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 인당수에 빠져 죽게 되나, 용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연꽃으로 지상에 나와서는 황후가 된다. 그리고 맹인 잔치를 열어 아버지 심 봉사를 다시 만나고 결국 심 봉사는 눈을 뜬다.

- '심청전' 요약

- ① '물'은 정화(淨化)를, '인당수'는 소멸(消滅)을 의미한다.
- ② '물'은 화자의 소망을 좌절시키고, '인당수'는 심청의 소망 실현의 계기를 제공한다.
- ③ '물'은 화자와 임 사이의 장애물이고, '인당수'는 심청과 아버지의 만남의 매개체이다.
- ④ '물'과 '인당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⑤ '물'과 '인당수'는 재생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하니  
 살아 계시지 못하여 우울 이 시름  
 (01행~02행) 죽지랑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전각(願聞)1)을 밝히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혈어 가도다.  
 (03행~04행) 죽지랑의 모습 회상  
 ㉠ 눈의 돌음 없이 저를  
 만나보기 어찌 이루리  
 (05행~06행) 재회에 대한 소망  
 낭(郎) 그리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다복 굴형2)에서 잘 밤 있으리.  
 (07~08행) 재회에 대한 확신  
 - 득오,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나]  
 東동風풍이 건듯 부러 積적雪설을 헤터 내니, 窓창 밖과  
 심근 梅梅花화 두세 가지 띄여세라. 긋득 冷냉淡담흔디  
 暗암香향은 므스 일고. 黃황昏혼의 돌이 조차 벼마티 빛  
 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玆玆 梅梅花화  
 갓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  
 더타 너기실고.

꽃 디고 새 님 나니 綠녹陰음이 실렸논디, 羅나幃帷 寂  
 적寞막하고 繡슈幕막이 뷔여 있다. 芙부蓉용을 거더 노  
 코 孔공雀작을 둘러 두니, 긋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  
 돛던고. 鴛원鴦앙錦금 버혀 노코 五오色色線선 플터 내  
 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手슈品품은 크  
 니와 制制度도도 7줄시고. 珊산瑚호樹슈 지게 우히 白  
 白玉玉函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卞  
 卞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千천里里  
 萬만리리 길히 뉘라셔 초자 같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  
 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널 제, 危위樓루에 혼자 올  
 나 水슈晶정簾렴을 거든마리, 東동山산의 돌이 나고 北  
 北極극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淸光광을 띄워 내여 鳳봉凰황樓누의 붓티고져. ㉠ 樓누  
 우히 거러 두고 八팔荒황의 다 비최여, 深심山山 窮궁谷곡 점났?  
 티 밉그쇼셔.

乾건坤곤이 閉폐塞塞식하야 白백雪雪이 혼 비친 제, 사름  
 은크니와 놀새도 긋쳐 있다. 瀟쇼湘상 南남畔畔만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玉樓樓 누 高고處處야 더욱 닐너 므스흔리. 陽  
 陽春춘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茅모簷檐 비천  
 히를 玉玉樓樓누의 올리고져. 紅紅裳裳을 니미치고 翠취袖  
 슈를 반만 거더 日일暮모脩슈竹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님의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靑淸燈燈 등 거론 것  
 티 鈿뎌箏공篋후 노하 두고, 惝惝나 님을 보려 턱 밧고

비겨시니, 鴛鴦鴦금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쟈고.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다]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01~02행) 그대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03~06행) 그대가 없는 외로움과 슬픔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07~11행) 그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어휘 풀이] 1) 전각(殿閣) : 아름다운 모습 2) 다복 굴형  
 : 다복쑥 우거진 무덤.

3. [가]~[다]의 화자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헤어진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죽음을 애도하며 회상하고 있다.
- ③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계절의 흐름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4. <보기>는 ㉠에 대한 해석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신라의 향기는 ‘향찰’로 기록되어 전해지기 때문에 완전한 해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모죽지랑가의 현대어 번역 가운데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5행이다. ㉠을 ‘눈을 돌리지 않고서’의 뜻으로 풀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경우, 5행과 6행은 “눈을 돌리지 않고서 저를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을 ‘눈물 돌음 없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5행과 6행의 내용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 저를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로 해석되어 앞의 해석과 달리 ( )

- ① 개인의 슬픔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게 된다.
- ②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게 된다.
- ③ 화자의 슬픔과 그리움의 정조를 강조하게 된다.
- ④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모습을 부각시키게 된다.
- ⑤ 당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게 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하니  
 살아 계시지 못하여 우울 이 시름  
 (01행~02행) 죽지랑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전각(願聞)1)을 밝히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혈어 가도다.  
 (03행~04행) 죽지랑의 모습 회상  
 ㉠ 눈의 돌음 없이 저를  
 만나보기 어찌 이루리  
 (05행~06행) 재회에 대한 소망  
 낭(郎) 그리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다복 굴형2)에서 잘 밤 있으리.  
 (07~08행) 재회에 대한 확신  
 - 득오,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나]  
 東동風풍이 건듯 부러 積적雪설을 헤터 내니, 窓창 밖과  
 심근 梅梅花화 두세 가지 피여세라. 긋득 冷냉淡담흔디  
 暗암香향은 므스 일고. 黃황昏혼의 돌이 조차 벼마티 빛  
 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玆玆 梅미  
 花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  
 더타 너기실고.

꽃 디고 새 님 나니 綠녹陰음이 실렸논디, 羅나幃위 寂  
 적寞막하고 繡슈幕막이 뷔여 있다. 芙부蓉용을 거더 노  
 코 孔공雀작을 둘러 두니, 긋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  
 돛던고. 鴛원鴦양錦금 버혀 노코 五오色色線선 플터 내  
 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手슈品품은 ㅋ  
 니와 制制度도도 ㅋ줄시고. 珊산瑚호樹슈 지게 우히 白  
 白玉玉函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ㅋ  
 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千천리리  
 萬만리리 길히 뉘라셔 ㅈ자 같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  
 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널 제, 危위樓루에 혼자 올  
 나 水슈晶정簾렴을 거든마리, 東동山산의 돌이 나고 北  
 북極극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淸光광을 띄워 내여 鳳봉凰황樓누의 붓티고져. ㉠樓누  
 우히 거러 두고 八팔荒황의 다 비최여, 深심山山 窮궁谷곡 점났?  
 티 밍그쇼셔.

乾건坤곤이 閉폐塞塞하야 白백雪설이 현 비친 제, 사름  
 은 ㅋ니와 놀새도 ㅋ쳐 있다. 瀟쇼湘상 南남畔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玉樓樓 高고處처야 더욱 닐너 므스흔리. 陽  
 양春춘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茅모簷첨 비친  
 히를 玉玉樓樓의 올리고져. 紅홍裳裳을 니미치고 翠취袖  
 슈를 반만 거더 日일暮모脩슈竹죽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님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淸淸燈燈 거론 것  
 티 鈿뎌箏공篋후 노하 두고, ㅈ의나 님을 보려 ㅈ 밍고

비겨시니, 鴛鴦鴦금도 ㅈ도 ㅈ샤 이 밤은 언제 쟈고.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다]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01~02행) 그대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03~06행) 그대가 없는 외로움과 슬픔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07~11행) 그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어휘 풀이] 1) 전각(殿閣) : 아름다운 모습 2) 다복 굴형  
 : 다복쑥 우거진 무덤.

5. [가]~[다]의 화자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헤어진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죽음을 애도하며 회상하고 있다.
- ③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계절의 흐름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6. <보기>는 ㉠에 대한 해석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신라의 향기는 ‘향찰’로 기록되어 전해지기 때문에 완전한 해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모죽지랑가의 현대어 번역 가운데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5행이다. ㉠을 ‘눈을 돌리지 않고서’의 뜻으로 풀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경우, 5행과 6행은 “눈을 돌리지 않고서 저를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을 ‘눈물 돌음 없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5행과 6행의 내용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 저를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로 해석되어 앞의 해석과 달리 ( )

- ① 개인의 슬픔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게 된다.
- ②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게 된다.
- ③ 화자의 슬픔과 그리움의 정조를 강조하게 된다.
- ④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모습을 부각시키게 된다.
- ⑤ 당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게 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청산(靑山)은 내 뜻이요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綠水) 흘러간들 청산(靑山)이야 변(變)홀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저 우리 예어 가논고.

7. 이 시조의 초장에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역설법            ② 직유법            ③ 대조법
- ④ 반어법            ⑤ 설의법

8. 이 시조의 '청산'과 '녹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다.
- ② 비슷한 색채 이미지를 드러낸다.
- ③ '청산'은 화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 ④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녹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흰 구름 프른 나는 골골이 잠겼는디  
추상(秋霜)에 물든 단풍(丹楓) 봄콧도곤 더 조해라  
천공(天公)이 날을 위후야되 빗출 ㉠ 꿈여 니도다.  
- 김천택

9. 이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봄콧'은 '단풍'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 ② 사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③ 원경(遠景)의 묘사가 돋보인다.
- ④ 자연물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보인다.
- ⑤ '봄콧, 단풍'로 보아 지금의 생활이 즉흥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0. 이 시조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에 대한 화려함을 극찬하고 있다.
- ② 비유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 친화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
- ④ 세속적(世俗的)인 삶의 무상함과 슬픔을 초극하고자 한다.
- ⑤ 감정이입(感情移入)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청산아 웃지 마라. 백운아 조롱 마라  
㉠ 백발 흥진에 내 즐겨 다니더냐  
성은이 지중하시니 ㉡ 갑고 가려 하노라

11. 이 작품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에 사는 한가로움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다채로운 자연의 풍경이 눈에 어리는 것 같아.
- ③ 우리 선인들의 자연관과 '강호가도'경향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야.
- ④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사대부의 모습이야.
- ⑤ 현실 정치에서의 갈등을 자연 속의 풍류로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적 자기 방어라고 봐야 돼

12. 이 시의 화자가 현재 자연을 즐기는 삶을 누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로 보고 있는 것은?

- ① 벼슬에서 물러나서
- ②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 ③ 자연의 경치가 아름다워서
- ④ 맛있는 술과 안주가 있어서
- ⑤ 가난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 업슨 청산(靑山)이요, 태(態)업슨 유수(流水) | 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요,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중(中)에 병(病) 업슨 이몸이 ㉡분별(分別) 업시 늙으리  
라.

13. 종장에서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 ② 자연귀의(自然歸依)
- ③ 연군지정(戀君之情)
- ④ 전전반측(轉轉反側)
- ⑤ 좌불안석(坐不安席)

14. ㉠이 지시하는 말을 본문을 참조하여 한 단어로 쓰시오.

子)가 아니라도 품음 직도 하다마는, /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글로 설워하나이다.

- 박인로, '조홍시가(早紅柿歌)'

㉡ 덜커덩 방아나 짚어 히애 / 거친 밥이나 지어 히애 / 아버님 어머님께 바치웁고 히야해 / 남거든 내 먹으리 히야해 히야해

-고려속요, '상저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즌비 개단 말가 흐리던 구름 걷단 말가  
 압내희 기픈 소히 다 몯앗다 흐느낀나  
 진실로 몯디온 몯아시면 갠긴 시서 오리라

15. 다음 <보기>에서 이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와 의미상 대응되는 것은?

— <보 기> —

眞진珠珠館관 竹독西서樓루 五오十십川천 느린 물이  
 태태白백山산 그림재를 東동海해로 다마 가니, ㉠출하리  
 漢한江강의 木목覓觅의 다히고져. ㉡王왕程程이 有有限한하고 風  
 풍景경이 못 슬므니. 幽유懷회도 하도 할샤, 客객愁수도 들  
 디 업다. ㉢仙선槎사를 띄워 내여 斗두牛우로 향흐살가, ㉣仙선  
 人인을 초즈려 丹단穴혈의 머므살가. 天던根근을 못내 보와  
 望망洋양亭亭 울은말이, ㉤바다 밝근 하늘이니 하늘 밝근 므  
 서신고. 갓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불거니 썸거  
 니 어즈러이 구느디고.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다음 중 이 시의 화자의 정서와 유사한 것은?

① 아버지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至親)이라. / 부모  
 곳 아니면 이 몸이 이실소냐. / 오조(烏鳥)도 반포(反哺)  
 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김상용, '오륜가'

② 지난 해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 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 슬프고 슬픈 광릉 땅이여. / 두 무덤이  
 마주 보고 있구나. / 백양나무에는 으스스 바람이 일어나  
 고 / 도깨비불은 숲 속에서 번쩍인다. / 지전으로 너의  
 혼을 부르고, / 너희 무덤에 술잔을 따르네.

-허난설헌, '곡자(哭子)'

③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分別)할 줄 이시라

-윤선도, '견회요'

④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 유자(柚

## 정답 및 해설

### 1) <답> ②

이 노래에는 비유가 사용되지 않고 다만 '물'이라는 원형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물을 통해서 임에 대한 사랑과 단절 및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하나의 서사 속에 삽입된 삽입 가요로,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2) <답> ②

'공무도하가'에서 '임'은 화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화자를 절망에 이르게 한다. '심청전'에서 심청은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빠져 죽지만, 황후가 되어 결국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심 봉사는 눈을 뜬다.

[가] 득오,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 주제 : 죽지랑에 대한 흠모의 정, 화랑 죽지랑에 대한 추모의 정

• 해제 : 화랑인 득오기 자기가 모시던 죽지랑이 죽자 그를 그리워하며 읊은 향가이다.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인 죽지랑을 찬양하면서 저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구성 :

01~02행: 죽지랑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03~04행: 죽지랑의 모습 회상

05~06행: 재회에 대한 소망

07~08행: 재회에 대한 확신

[나]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 주제 : 연군의 정(忠臣戀君之詞)

• 해제 : 임금을 사모하는 신하의 정성을, 한 여인이 그 남편을 생이별하고 그리워하는 연모의 정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전체의 내용의 흐름은 춘, 하, 추, 동의 계절적 변화에 따라 사무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작품의 서두와 결말을 두고 있어서, 모두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외로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경은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한결같음을 드러내고 있다.

• 구성 :

춘사: 봄을 맞이하여 임에게 매화를 보내고 싶은 마음

하사: 여름을 맞이하여 임에게 옷을 보내고 싶은 마음

추사: 가을을 맞이하여 임에게 청광(淸光)을 보내고 싶은 마음

동사: 겨울을 맞이하여 임에게 양춘(陽春)을 보내고 싶은 마음

[다]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 주제 :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

• 해제 :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편지 형식으로 담담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바닷가에 나가 임을 기다리는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로움과 그리움에 시적 정서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은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더욱 절실하게 드러난다.

• 구성 :

01~02행: 그대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

03~06행: 그대가 없는 외로움과 슬픔

07~11행: 그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 3) <답> ③

세 작품 모두에서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죽은 죽지랑을 애도하며 추억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다]의 화자는 곁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만 해당한다. [다]의 화자는 재회에 대한 기대감은 드러내지만 재회를 확신하지는 않고 있다. ② [가]에만 해당한다. ④, ⑤ [나]에만 해당한다.

### 4) <답> ③

①을 '눈물 돌음 없이'로 해석하면 '눈'을 '눈물'로 해석하기 때문에 화자가 죽지랑을 생각하면서 가지게 되는 슬픔과 그리움의 정조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의 해석에서는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와 믿음만이 드러나 있지만 뒤의 해석에서는 화자의 정조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

[가] 득오,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 주제 : 죽지랑에 대한 흠모의 정, 화랑 죽지랑에 대한 추모의 정

• 해제 : 화랑인 득오기 자기가 모시던 죽지랑이 죽자 그를 그리워하며 읊은 향가이다.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인 죽지랑을 찬양하면서 저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구성 :

01~02행: 죽지랑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03~04행: 죽지랑의 모습 회상

05~06행: 재회에 대한 소망

07~08행: 재회에 대한 확신

[나]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 주제 : 연군의 정(忠臣戀君之詞)

• 해제 : 임금을 사모하는 신하의 정성을, 한 여인이 그 남편을 생이별하고 그리워하는 연모의 정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전체의 내용의 흐름은 춘, 하, 추,冬の 계절적 변화에 따라 사무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작품의 서두와 결말을 두고 있어서, 모두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외로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경은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한결같음을 드러내고 있다.

• 구성 :

춘사: 봄을 맞이하여 임에게 매화를 보내고 싶은 마음

하사: 여름을 맞이하여 임에게 옷을 보내고 싶은 마음

추사: 가을을 맞이하여 임에게 청광(淸光)을 보내고 싶은 마음

동사: 겨울을 맞이하여 임에게 양춘(陽春)을 보내고 싶은 마음

[다]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 주제 :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

• 해제 :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편지 형식으로 담담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바닷가에 나가 임을 기다리는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로움과 그리움에 시적 정서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은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더욱 절실하게 드러난다.

• 구성 :

01~02행: 그대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

03~06행: 그대가 없는 외로움과 슬픔

07~11행: 그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다. 앞의 해석에서는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와 믿음만이 드러나 있지만 뒤의 해석에서는 화자의 정조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

7) ③

청산은 고정적, 불변적인 나의 뜻으로 녹수는 순간적, 유동적인 임의 정으로 표현되어 대조적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8) ④

이 시조는 연모의 정을 그린 시조로, '청산'과 '녹수'는 화자와 '임'의 속성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이다.

9) <답> ②

10) <답> ③

11) <답> ⑤

임금의 은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정치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태평스러운 시대에 임금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 <답> ②

화자의 표현대로 보면 '성은이 지중하시니'라 하였으므로 근본적인 이유를 임금의 은혜에 두고 있다.

13) <답> ②

14) <답> 자연(自然)

15) ②

16) ③

5) <답> ③

세 작품 모두에서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죽은 죽지랑을 애도하며 추억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다]의 화자는 곁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만 해당한다. [다]의 화자는 재회에 대한 기대감은 드러내지만 재회를 확신하지는 않고 있다. ② [가]에만 해당한다. ④, ⑤ [나]에만 해당한다.

6) <답> ③

㉠을 '눈물 돌음 없이'로 해석하면 '눈'을 '눈물'로 해석하기 때문에 화자가 죽지랑을 생각하면서 가지게 되는 슬픔과 그리움의 정조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